

소망의 언덕



최정원 목사
광주소망교회 담임

오랫동안 해온 질문이 있다. 사람은 고난 없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사람은 고난 없이도 진리를 찾아갈 능력이 있을까? 고난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으며 진리를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 제발 내 삶에서 고난과 고통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내가 내린 결론은 '아니다'이다. 사람은 고통 없이도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진짜 은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금같이 단련된다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손의 못 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열구리에 넣어 봐야 믿겠다면 도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까."라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미국 뉴저지 친양교회를 은퇴하신 허봉기목사님이 쓰신 '사도가 코 고는 소리'라는 책이 있다. 그분은 토요일에 친구 집에 간 스물 세살 딸이 칼에 찔려 죽

하나님 없는 형통이 저주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러나 그 저주의 길이 지금 보기에는, 오늘 보기에는 형통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요나:3)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옴바 항구로 내려갔다. 그런데 마침,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요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자 어찌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좋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 배가 뜨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방금까지는 배가 시동이 잘 걸렸는데 이유를 모르며 배가 고장이 나서 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말대로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와야 ~~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텐데 이걸 뭘 쫓더라도 너무 잘 풀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교회를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하나님의 날 주일을 내가 사용하는 일요일로 바꿔서 교회를 떠나니 공기가 너무 신선하다. 일요일의 교회 공기보다 골프장의 공기가, 등산로의 공기가, 돈벌고 쓰는 공기가 이렇게 새롭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왜 이제 알았지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최학선 목사님은 '기도수업'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예수 없는 형통을 거부하라

었다는 소식을 주일 설교 중에 듣게 되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허목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경험되는 것이다.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의 태도에 있다"고 말하는 설교였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 딸의 차가운 시신을 볼때 울며 장례식을 치른 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 그분은 딸을 잃으면서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자식이 죽으면 자신도 죽게 되는 경험 말이다. 자식을 잃고 오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진짜 목회를 다시 한다는 고백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딸 아이의 느닷없는 최후, 저희 가정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안타까워하며 따뜻한 마음 보여주시셔서 감사 드립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신학자 한스 쾅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 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고난과 상처 없는 신앙생활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오해 없는 가정은 없다. 갈등 없는 사회는 없다. 도대체 어디에 사랑만 있는 가정, 소망만 있는 교회, 화해와 용서만 있는 사회가 어디에 있던 말인가.

구약성경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중의 하나는 하나님 없는 잘됨을 형통이라고 감사하지 말자. 하나님 없는 잘됨을 거부하자. 더 나가 하나님 없는 잘됨을 저주라고 선포하지는 것이다. 요나서는

교만을 고백한다. 목사님은 집사 시절에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기도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분은 번지르르하고 잘 짜인 정성 어린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알았고 울 흐르듯이 매끈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기도에 대한 신념이었다. 가끔 공 예배 때 더듬거리는 기도를 들을 때면 기도자의 준비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못마땅했다.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대표 기도 순서가 오면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사전에 정성껏 원고를 쓰고 외웠으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예행연습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잘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졌고 성도들도 기도를 잘하는 집사로 인정 해줬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자 자신을 드러내던 그 번지르르한 기도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한 문장 이외에는 기도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 틀리거나 더듬거리는 사람을 정죄했던 자신의 실수와 아픔을 회개했다는 것이다.

고난을 아무리 축복이라고 말해도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언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세월을 먹으면서 더 살고 더 어려운 것은 무슨 일인가. 그래도 고난은 교만한 우리의 목을 꺾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도구이기(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119:71))는 말씀을 소리 높여 읊조려 본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산책



광주·전남 통합시 논의에서 '통합돌봄'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지금, 최근 제도 변화는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39호)은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을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돌봄 인프라 확충 정책이자, 종교기관을 지역 돌봄 체계의 한 축으로 공식 편입시킨 제도적 전환이

정기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는 자산이다. 따라서 종교시설 활용의 본질은 '유휴 공간의 개방'이 아니라 '관계 기반 돌봄의 회복'에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선진 사례가 독일의 디아코니아이다. 디아코니아는 독일 개신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네트워크로, 병원·요양시설·장애인 지원·아동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와 협력하며 돌봄을 수행한다. 국가는 재정과 제도를 책임지고, 디아코니아는 전문성과 공동체성을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엄격히 지켜낸다는 점에서, 종교와 공공의 건강한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해야 할 지점이다. 결국 광주·전남 통합돌봄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있다. 공공은 제도와 재정을 책임지고, 종교기관은 관계 기반의 일상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담당하며, 지역사회는 참여와 연대로 이를 뒷받침하는 '순환형 돌봄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놓여놓은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도시는 전문서비스의 허브로 기능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은 분명 기회다. 그러나 성패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관계와 윤리가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광주·전남 통합시는 이제 선택

통합돌봄의 미래, 종교와 공공의 새로운 동행을 묻다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단순한 공간 확장에 그칠지, 아니면 돌봄 패러다임 자체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광주·전남이 직면한 돌봄의 위기는 구조적이다. 놓여놓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돌봄 제공 기반이 붕괴되고 있고, 도시는 1인 가구 증가와 관계 단절로 공동체적 돌봄이 해체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 위기 속에서 통합돌봄을 행정 통합의 하위 정책으로만 다룰 경우, 서비스 공급은 확대되지만 관계는 사라지는 '돌봄의 역설'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에서 종교기관의 역할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선다. 종교시설은 이미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관계 자본과 신뢰 구조를 지닌 공동체다. 이는 행정

광주·전남 통합돌봄이 배워야 할 지점은 바로 이 '협력적 파트너십'이다. 종교기관이 공공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거나, 반대로 공공 영역을 대체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복지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기준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경계도 필요하다. 종교기관이 돌봄을 선교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전문성 없이 참여할 경우 사회적 신뢰는 무너질 수 있다. 디아코니아 역시 철저한 전문성, 국가와의 제도적 협력, 공공성 유지라는 원칙 위에서만 작동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성찰

의 기로에 서 있다. 행정 중심의 공급 확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종교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 중심 돌봄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실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이며, 더 큰 조성이 아니라 더 성숙한 협력이다.



이박행 목사
복내전인치유센터 원장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총무
예상림동 기후환경위탁대응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직장인클럽 100일 목상집 _ 4. 균형 일과 여가, 교회-가정-직장의 조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성수

크리스천들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주일성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특히 일터 환경에서 겪는 몇 가지 상황 속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평소에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쉬는 데 문제가 없지만 간혹 주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동료와 근무를 바꿀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야 한다. 휴일에 쉬고 싶은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테니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부탁할 수 있어야 한다. 철도 공무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간증을 들으니 주일 근무를 대신해주는 보상으로 설날과 추석 등 연휴의 근무를 이에 도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여건도 쉽지 않아서 부득이 주일에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이른 시간이나 밤에 예배에 참석하거나 혹은 낮 시간이라도 양해를 구해서 가까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주일성수 문제가 생길 때 결연한 자세로 '순교'만 결심한다면 우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다

하기가 쉽지 않다. 주일 정오 무렵에 열리는 결혼식에 비즈니스 관계상 가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저 부조만 보내거나 일찍 드리는 예배 후에 결혼식을 참석하는 것은 소극적인 대안일 뿐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중에 미리 찾아 가서 축하해주는 방법이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일에도 꼭 일을 해야 하는 공익 직종이나 서비스업에는 크리스천들이 진출하지 말아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분야의 일터는 누가 변화시키고, 누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는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기 힘든 직장에 가서는 안 된다. 휴원받아 준비된 크리스천들이 선교사 마인드와 영성으로 준비해서 가야 한다.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듯이 주일성수가 힘든 직종 분야에 일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적극적인 주일성수이다.

>>> 일하는 사랑의 기도

비밀직한 주일성수로 일터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야 하겠습니다. 월 없이 돌아가는 24시간, 365일 사회 속에서 예배와 인식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지혜를 주소서.

본지는 위 글을 저자와의 협의를 거쳐 게재한다. (원용일 목사 지음/도서출판 브니엘)

노블요양병원

밝은마음병원

의료선교병원
나사렛요양병원

매일 드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 339-9905, FAX 061) 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 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 010-7676-6706
<http://peacemind.co.kr>

**진료
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